



### 대구시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대상 김라임 아기

대구시간호사회(회장·박현숙)가 '제12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7월 5일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었다.

대구시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119명이 참가했다.

대상에 김라임(여·6개월) 아기가 선발돼 장학금 7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 김시은(여·4개월) 아기에게 장학금 50만원, 대한간호협회장상 최유주(여·5개월) 아기에게 금메달(7.5g)이 수여됐다. 우수상 서연우(남·4개월) 아기를 비롯한 3명에게 장학금 30만원, 장려상 이승언(남·5개월) 아기를 비롯한 6명에게 장학금 20만원, 보람상 강로운 아기(남·6개월)를 비롯한 15명에게 장학금 10만원이

수여됐다. 모유사랑상, 필립스 이벤트 모유수유상, 김혜정산후 조리원장상, 이븐플로상, 존슨앤드존슨상, 모니상 등을 총 21명이 받았다.

대상을 받은 김라임 아기의 엄마 박혜지 씨는 "저도 모유를 먹고 자랐고, 내 아이에게도 너무나 당연히 모유를 먹인다고 생각해서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외출할 때 준비할 것 없으니 간편해 좋고, 마트 등에는 수유실이 갖춰져 있어 젓을 먹이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박현숙 회장은 "모든 아이들이 모유를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가 참가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격려사, 김규학 대구시의원이 축사를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충남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최우수건강아상 이은서 아기

충남간호사회(회장·이순옥)는 '제1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7월 6일 은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가 후원했다. 충남 시군보건소에서 1차 선발대회를 거쳐 선발된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49명이 참가했다.

최우수건강아상에 이은서(여·4개월) 아기가 선정돼 상장과 금메달(22.5g)을 받았다. 우수건강아상 권소미(여·5개월), 이채림(여·5개월), 신라희(여·4개월) 아기에게 상장과 금메달(11.25g)이 수여됐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이서하(남·5개월) 아기에게 상장과 금메달(7.5g)이 주어졌다. 건강한아기상 유서진(남·6개월) 아기를 비롯한 14명이 상장과 금메달(3.75g)을

받았다. 모유사랑원장상, 줌라벨상, 숨쉬는한의원장상, 이븐플로상, 필립스 이벤트상 등을 30명이 받았다. 자녀 넷을 둔 윤설아(여·6개월) 아기와 정라온(여·4개월) 아기 가정에 '다둥이상'을 시상했다.

최우수건강아상 이은서 아기의 엄마 윤은혜 씨는 "셋째 은서까지 모두 모유수유를 했는데 그 덕분에 아이들이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서 "특히 옆에서 남편이 적극 도와줘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순옥 회장은 "국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모유수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일환 충남 복지보건국장, 장기승 충남도의원, 조만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광주시간호사회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

광주시간호사회(회장·박인혜)는 '2017 간호부서장 간담회'를 6월 28일 개최했다. 광주시에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인혜 회장이 광주시간호사회의 주요사업과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간호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부서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해 조영화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역



센터장이 소개했다.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심재연 전남대병원 간호부장이 특강을 했다. 참가자들은 중소병원의 조직관리와 간호인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 4차 산업혁명과 직업건강 직업건강간호학회 학술대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회장·김현숙)는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4차 산업혁명과 직업건강 추진전략' 주제로 7월 5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현재까지의 직업건강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새 시대에 적합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직업건강 전망' '근로자 스마트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과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대응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현숙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고민해보고, 바람직한 직업건강간호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윤리 세미나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10년차 이상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간호윤리 세미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세미나는 '간호사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리더십-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 중심으로' 주제로 진행됐다.

간호사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중간관리자들의 성숙한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희정 환자안전본부팀장이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의 운영과 윤리', 이창



준 구루퍼플스 대표가 '간호사의 윤리의식 고양 진성리더십' 주제로 강연했다.

김소선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산업간호사회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산업간호사회(회장·정혜선)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2017년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5일 개최했다.

산업간호사들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7편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 Green Health를 향한 건강증진 활동(이미라 LIG 넥스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상= 혼자 뛰는 내가 아닌 함께 걷는 우리(송재우 포스코건설 보건관리자)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권윤정 롯데첨단소재 보건관리자)

△대한간호협회장상= 뱃살연령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비만근로자 관리(박영미 한국남부발전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회회장상= 산업간호 혁명 4.0(신영미 SK하이닉스 부속의원 보건관리자) 안티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조현희 스텝코 보건관리자) 병원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관리(이수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관리자).

한편 산업간호사회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동안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제1회 산업간호취업박람회'를 운영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대학보건간호사회 총회 ... 유선주 회장 선출

대학보건간호사회는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유선주 간호사(부경대·사진)를 확정했다. 대학보건간호사회는 전국 대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조직이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은 이두리 간호사(부산외국어대), 총무이사도 유금숙 간호사(한국해양대), 홍보이사도 이애나 간호사(경성대), 교육이사도 이은주 간호사(부산대)가 확정됐다.

간호사회는 올해 회원 역량강화



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선주 회장은 "대학보건간호사의 지위를 확립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중환자간호학회 논문작성 세미나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이영희)는 2017년 하반기 학술세미나를 '논문작성 세미나 : 중재연구방법론' 주제로 8월 21일 삼성서울병원 양병원 강당(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중재연구 주제 선정, 설계, 통계, 논문작성 등이 다뤄진다. 대한간호학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등록.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https://kscen.jams.or.kr) 참조.

### 소통 잘하려면 상대 눈높이에 맞춘 언어로 전달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는 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복지 세미나를 7월 5일 개최했다.

'두근두근, 그 설렘과 떨림' 주제로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스피치' 주제로 김은성 KBS 아나운서가 강연했다.

정재찬 교수는 "질병 치료는 과학이지만, 환자를 존엄한 존재로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은 인문학이며 예술"이라면서 "환자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요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시절 뱃물을 넘을 때처럼 성공을 기대하는 설렘과 실패에 대한 불안이 공존할 때 나는 소리가 두근두근"이라면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참으로 많은 뱃물이 있고, 설렘과 불안이 맞부딪치는 가운데서

도 청춘처럼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아나운서는 "스피치는 내가 가진 콘텐츠를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며,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통을 잘해야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며, 공감대 형성은 경청과 관찰을 잘할 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을 위해선 경험을 공유하고 그 폭을 넓혀나가는 '공감대 형성'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건강한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눈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회원 역량강화 교육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회장·윤인자)가 '소화기 치료내시경간호' 주제 교육을 6월 24일 실시했다. 5년째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윤인자 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들과 내시경을 직접 집도하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내용은 내시경실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 치료, 시술, 진정에 대한 간호와 세척, 감염예방, 수가 등으로 구성됐다.

윤인자 회장은 "이번 교육은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소화기 치료내시경의 과정과 간호, 내시경검사 전·중·후 간호실무를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